

- 한우협회, 설명절 한우고기 나눔
- 서초구 영양 취약계층에 전달



전국한우협회가 한우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한우나눔 사업으로 서초구 영양 취약계층에게 한우고기 340kg을 전달했다.

한우협회는 설명절을 앞두고 1월 30일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찾아 서초구 관내 어려운 이웃 100가구를 대상으로 불고기·국거리 등 한우고기를 전달,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한우나눔 활동을 펼쳤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매년 여러 기관을 통해 나눔 활동을 해왔는데 협회가 속한 서초구의 어려운 이웃을 돕게 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항상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한우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한 성장을 돕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한우협회에 감사하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지원을 통해 더불어 함께 나누는 행복한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우자조금, 한우 홍보대사에
- 배우 한혜진 씨 위촉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배우 한혜진 씨를 2018 한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날 열린 위촉식을 시작으로 배우 한혜진 씨는 2018년 신규 광고모델로서의 역할과 함께 홍보대사로서 각종 행사에 참석해 우리 한우의 우수성과 한우산업의 위상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친다.

한우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한혜진 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한우의 홍보대사로 위촉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주부로서 우리 한우를 더욱 사랑하고, 앞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인에 우리 한우의 우수성과 위상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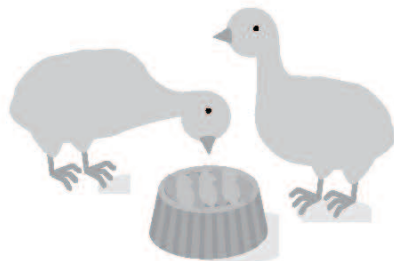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우자조금 민경천 위원장은 현재 한우농가는 한·미 FTA를 비롯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부정청탁금지법 등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한우가 국민에게 더욱 사랑 받을 수 있도록 한우 홍보대사로서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돈협회, 제품검증사업 결과 지부, 지자체 등과 공유키로**

대한한돈협회는 한돈산업 관련 제품검증 사업 결과를 협회 각 지부, 지자체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협회는 2월 16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한돈산업 관련 제품검증 사업’ 조사·분석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선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검증사업 결과와 2015~2016년 약취저감 우수제품 사후검증 결과가 발표됐다.

협회는 이날 발표 내용을 비롯해 제기된 의견들을 취합해 최종 발표자료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국 지부는 물론 정부, 지자체 등에 발송키로 했다. 또한 정확한 효과 제시를 위해 적용농가의 여건과 사육환경을 함께 공개하고 검증결과를 농가에 팸플릿으로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은 가축분뇨를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은 업계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업계 참여 및 관심과 더불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추진으로 한돈산업이 가축분뇨 문제로부터 한 걸음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돈자조금, 원산지 표시위반 근절 유관기관과 부정유통 차단 협력**



한돈자조금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근절을 위해 손을 잡았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1월 22일 경북 김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에서 한돈자조금 하태식 위원장, 정상은 사무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재호 원장, 오상균 시험연구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다 적발되고 있는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을 줄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농관원에서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법’ 시연회를 열어 과학적 원리 및 기술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판별법의 이해와 신뢰도를 높였다. 한돈자조금 하태식 위원장은 국민들이 믿고 사랑해주는 국산 돼지고기 한돈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이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한 다며 한돈자조금에서도 농관원의 단속활동과 판별법 개발 등을 적극 홍보해 부정유통을 차단하는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낙농육우협회, 이사회 개최 ● 무허가축사 해결 최우선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 계획을 밝혔다.

기획조정실은 낙농육우산업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우유·쇠고기 수급 안정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 낙농정책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된 정책 반영을 위한 대정부, 대국회 건의에 나서며 각종 토론회, 정책간담회, 좌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중점적으로 실시될 사업들은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대응활동, 수급정책에 대한 대응활동, 국산우유 사용 확대위한 활동, 무허가 축사 대책 마련위한 활동 등 다양한 사업들이 실시된다. 또한 낙농정책 순회교육, 낙농육우인 지도자 대회 등을 통해 농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도 진행한다.

깨끗한목장가꾸기운동을 통해 목장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해 우유 및 낙농에 대한 대외 이미지를 개선할 계획이다.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등이 맞물려 전 축산업계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우선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낙농육우농가들의 권익 대변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유자조금, 도심속 목장나들이 ● 우유 이미지 개선에 효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의 '2017년 우유자조금사업 홍보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유자조금을 통해 추진된 홍보사업에는 TV광고 및 프로그램 제작, 온·오프라인 PR, 도심 속 목장 나들이, 국산우유 인증(K-MILK) 홍보 등이 있다.

이러한 자조금 홍보사업 평가를 위해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우유 이미지 증진, 우유 소비 의향 증진, 우유 정보 제공, 우유 값어치 증진 등 4개의 소비자 영향력 항목을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심 속 목장 나들이' 사업이 종합점수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어 K-MILK 홍보, 우유의 날·국내산 치즈 페스티벌을 비롯한 홍보행사, 주부 우유 요리교실과 같은 소비자 정보 제공 사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심 속 목장 나들이 사업은 특히 우유정보 제공과 우유 이미지 증진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다른 항목에서도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들은 도심에서 젖소 착유·송아지 우유주기 등 다양한 목장 체험 이벤트들이 우유 이미지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 우유와 관련한 지식을 흥미롭게 습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도심 속 목장 나들이 사업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K-MILK 인증 홍보사업의 경우, 소비자 영향력 항목 중 우유 소비 의향 증진 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48.2%가 K-MILK 마크를 알고 있으며, 인지자의 41.1%는 유제품 구입 시 K-MILK 마크를 확인한다고 답했다.

양계협회·계란자조금, 소비홍보
이미지 개선·계란소비 활성화



대한양계협회,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농협, 한국양계농협, 대전충남양재농협은 2월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인근에서 최근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를 돕기 위한 계란 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했다.

관계자는 이번 계란 소비촉진 행사는 살충제 계란 사건 및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소비자들의 국내산 계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최근 위축된 계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이후에도 계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계란은 오랜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이 쉽게 즐겨 먹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 연구를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듬뿍 가지고 있다며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영양만점인 계란을 안심하고 즐겨 주실 것을 당부했다.

양봉협회, 제19대 회장에
황협주 前충청남도지회장 당선



한국양봉협회 제 19대 신임회장에 황협주 전 충청남도지회장이 당선됐으며, 앞으로 3년 간 양봉협회를 이끌게 됐다.

1월 30일 대전서 열린 한국양봉협회 제45차 정기총회에서 19대 회장을 비롯한 새 임원진 선거를 진행했다. 황협주 후보 등 총 4명이 회장선거에 후보로 했고, 황협주 후보가 287표를 얻어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한편 부회장에는 정병춘, 박근호 후보가 각각 252표 277표를 얻어 당선됐고, 감사에는 양광식 전 제주도지회장과 문상재 전 이사 등 각 2명이 선출됐다.

한국양봉협회 19대 회장으로 당선된 박근호 신임 회장은 양봉협회와 회원 간 소통을 강조하며 협회를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강한 협회로 탈바꿈해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무자조금 도입과 양봉산업육성 정책이 퍼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포부를 내비쳤다.